

식품서 집값까지...치솟는 생활물가에 허리 휜다

광주·전남 8월 물가 동향...배추·상추 등 채소류 가격 폭등 외식비도 대부분 오르고 아파트 분양가 3년새 30% 상승

서민부터 중산층까지 고물가에 시름하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 의·식·주 다방면에 걸쳐 지역민들의 생활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생활물가지수는 117.40으로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4%, 2.1%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식품이 1달 새 0.6% 올랐고, 식품이외는 0.3% 올랐다. 품목별로도 잇따른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배추 등 엽근 채소류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 조사 결과 지난 23일 양동시장 기준 광주시 배추 가격은 1포기당 1만2000원에 달했다. 이는 2주 전보다 20% 비싸고, 전년 동기보다는 75.7% 올랐다.

이 밖에도 전년에 비해 적상추(14.3%↑), 얼갈이배추(20.1%↑), 풋고추(52.4%↑) 등 전반적인 채소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훌쩍 오른 외식 물가도 지역민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이 제공하는 품목별 외식비도 대부분 올랐다.

광주지역 냉면 가격은 폭염이 잇따랐던 지난달 기준 9800원으로 1년 전(9400원)보다 4.3% 올랐다. 같은 기간 삼겹살(환산후)은 1만4844원에서 1만5289원으로 3% 올랐다. 지난달 김치찌개 백반은

8200원으로 1달 전보다도 200원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급리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지역 부동산 경기가 우울하다는 하지만 막상 집을 구하려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택 가격 역시 턱없이 비싸다.

올 8월 기준 광주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m²당 555만4000원으로, 3년 전(429만1000원)보다 무려 29.4%나 올랐다. 평당(3.3m²) 분양가는 1832만8000원으로, '국민평수'라고 불리는 34평형(전용면적 84m²) 아파트라면 구입가가 6억2315만원이나 된다.

분양가 상승은 원자재 가격 인상과 직결되는데, 건설회사가 매입하는 레미콘, 철근, 단열재 등 이른바 '3대 자재'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지난 2021년 1m²당 6만8400원이었던 레미콘 가격은 최근 10만2600원으로 50% 증가했다. 철근은 t당 71만5000원에서 93만1000원(30.2%)까지 치솟았으며, 단열재 또한 30% 이상 올랐다.

신축 아파트 뿐만 아니라 구축 아파트 가격 오름세도 분명하다. 올 상반기 광주에서 세 번째로 거래량이 많았던 준공 10년차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10년 전 매매가가 1억5000만원 안팎이었으나 10년 새 2억3000만원 수준까지 올랐다. 이 단지는 도보로 학교 통학이 가능해 주변 인프라가 우수,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다. 이 아파트만 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25일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산물시장 청과동에 강원도산 곱랭지 배추가 쌓여있다. 이날 농협광주공판장에 따르면 배추(3개입) 1방 경매가는 특목 2만원대 중반, 상품은 1만원 대 중반에 거래됐다.

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내집' 마련을 위해서 10년 전보다 많게는 1억원이 더 필요해진 셈이다.

이 밖에도 대부분 부문에서 물가 상승 추세는 두

터졌다. 중동발 리스크 등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한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난달 광주지역 자동차용LPG 가격은 전월에 견줘 4.1% 올랐고, 도시가스 비용은 6.5% 올랐다. 학원비 및 가정학습

지 등 교육 부문과 의료, 보건, 교통 등이 대부분 올랐던 것으로 집계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104명에 지역인재 장학금 1억3000만원 전달

43년간 누적 39억원

광주은행은 25일 "최근 본점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 장학생 대표 4명을 초청해 (재)광주은행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광주은행은 지역 장학생들에게 지역인재 양성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 광주은행은 고등학교, 대학교, 자치단체를 비롯한 기관으로부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지역 학생들을 추천받아 104명의 장학생을 선발한 바 있다.

장학생들은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장학생 대표로 선발된 A(21)씨는 글로벌 회계사를 목표로 교내 봉사 동아리를 통해 국내·외 봉사활동에 참가하는가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전공을 살려 정기적으로 영어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앞서 광주은행은 지난 1981년, 재단법인 광주은행장학회를 설립해 43년 동안 4600여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총 39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 장학생들이 우



리 지역을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4일 VIP 고객들을 위해 광주 Wa뱅크 앱에 'VIP Wa 라운지' 서비스를

오픈했다. VIP Wa 라운지는 광주은행 VIP 고객 전용 디지털 공간으로,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여가·문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한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필립모리스 타바코 스틱 '센티아' 신제품 출시

한국필립모리스가 필연형 전자담배기 '아이코스 일루마(IQOS ILUMA)'의 저변 확대에 나선다. 올해로 글로벌 출시 10주년을 맞이한 '아이코스'는 전 세계 3080만여명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필연형 전자담배 기기 브랜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5일 '아이코스 일루마 시리즈의 전용 타바코 스틱 신제품 '센티아(SENTIA)'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센티아는 아이코스 일루마를 처음 접하는 성인 흡연자들에게 익숙한 담배의 맛을 선사해 기존 연초 흡연자가 쉽게 전자담배

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센티아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클래식 골드·실버·그린·퍼플 등 4종으로 출시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을 제외한 광주·대전·대구 등 지역 거점에 신제품을 선출시한다.

윤희경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는 "지역 진출에 저변을 넓혀감과 동시에 다양한 지역 기반활동에 참여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수자원공사 영·섬본부 취·정수장 특별점검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는 25일 "조류 발생 증가에 대비해 유역 내 지방정수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영·섬본부는 실시간 취수원 조류계측기 모니터링과 정수장 악취 관측검사를 강화해 조류 유입을 조기에 감지하고, 조류영향이 적은 지점으로 취수구는 선제적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류대응 약품주입설비의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약품의 재고를 사전에 확보하는 등 조

류에 의한 냄새 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주입하고 집중 대응할 예정이다.

주인호 영·섬유역본부장은 "섬진강댐 조류경보 발생에 따라 국민들의 수도물에 대한 불안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생산·공급 전 과정에 대한 운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전기요금 현실화, 한전 경영정상화 시켜야"

광주시·전남도·정치권 관심 촉구

한상원(사진)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경영정상화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으면서 지역 에너지 관련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전기요금 동결, 전력 생산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25일 광주일보와 만나 "한전의 채무

가 203조원으로, 매년 이자 부담만 6~7조원에 이르러 있어 사실상 제대로 경영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를 타개해 지역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치권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렴한 전력 생산을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영농형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단가를 낮

추기 위한 규제 철폐, 행·재정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 서도 에너지를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i-SMR과 신재생에너지를 두 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의 전력이 사용되는 여수국가산단에 i-SMR의 테스트베드를 설치해 우선 검증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이어 "어렵게 유지한 한전이 지역에서 더 성장·발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양이엔에스,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

이차전지 재활용 광주·전남 1호 공장

광양이엔에스 이차전지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공장이 광주·전남에서는 최초로 준공됐다. <사진> 전남도는 25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재사용하는 이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24일 광양이엔에스가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장치 산업의 성장에 따라 이차전지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제1호 이차전지 배터리의 재활용 공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준공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학범 광양이엔에스 대표이사, 임지우 포스코HY클린메탈 대표이사, 이남재 광

양이엔에스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학범 광양이엔에스 대표이사는 "이 공장은 광양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리사이클링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환경 보호를 통해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조달청, 지역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공공조달 길잡이 서비스

광주조달청이 25일 광주테크노파크를 방문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길잡이' 서비스를 실시했다. '공공조달 길잡이'는 공공조달에 진입하는 방법을 모르고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달시장 진입부터 성장까지 필요한 정보를 윈스톱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광주조달청은 컨설팅 전담관 2명을 지정·배치해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GICON 29일까지 '꿀잼광주 OTT 페스티벌'

'광주 에이스페어' 홍보관 운영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오는 29일까지 국내 최대 콘텐츠전시회인 '2024 광주 에이스페어(Ace Fair)'에서 '꿀잼광주 OTT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만의 독자적인 콘텐츠와 OTT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알리고, OTT 플랫폼 영상문화 콘텐츠 제작지원 성과를 지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의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광주가 콘텐츠

창작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OTT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작품을 올해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GICON 홍보관에는 OTT 플랫폼 제작지원 15개와 스토리 제작지원 11개, 스토리 공모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OTT 퀴즈, 포토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해당 이벤트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96.32 (-35.36)
↓ 코스닥	759.30 (-8.05)
↓ 금리(국고채 3년)	2.812 (-0.042)
↓ 환율(USD)	1330.45 (-4.45)